

헌재 결정 빨라지면 ‘4월 대선’ 늦어지면 ‘6월 대선’

한치 앞 안보이는 탄핵정국

국회 탄핵안 가결 거의 확실

개헌 놓고 치열한 다툼 예상

기각돼도朴 국정장악 불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길게는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헌재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2개월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정은 리더십을 잃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으로 보이고 정치권은 개헌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혼란을 우려해 탄핵 전에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여서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정파의 이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지도자들의 회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안 가결되나=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이미 궤도에 올랐다.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내달 2일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의 표(172표)와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40~60표 추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결 즉시 박 대통령은 국정에

■ 12월 3일까지 주요 정치 일정

11월 29일(화)	-野, 특검후보 2명 추천 - 탄핵 단일안 마련
11월 30일(수)	- 최순실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 촛불 시민불복종의 날 선포
12월 1일(목)	- 탄핵안 본회의 보고 (2일 표결시)
12월 2일(금)	- 내년도 예산안 처리 - 탄핵 본회의 표결(예정) - 특검 활동 시작
12월 3일(토)	- 6차 촛불집회

서 손을 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사에 들어간다. 헌재가 최종 180일에 걸친 심사 끝에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봄이나 여름에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것이다.

◇헌재 결정 시기·결과에 국가 운명 좌우=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헌재가 이를 기각해도 정국은 대혼돈에 빠져든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 시기도 문제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과 3월까지다. 그 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이 결정한다.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지는데 결렬될 뻔 수도 있다.

때문에 결정을 서둘러야 하겠지만 헌재 심사에 걸릴 기간은 아무도 모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만 63일이 걸렸다. 이 절차보다 빨리 진행된다면 내년 2월 초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며, 절차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3~4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장인 이춘석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탄핵안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비주류 의견 존중...야권 탄핵안 9일 표결 ‘무계’

“탄핵안도 야3당·비박계 일부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여당 비주류에도 회람하기로 하는 등 탄핵안 가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탄핵 디데이(D-day)도 여당 비주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에 가결 정족수 확보가 준비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2일이라도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

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9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야3당 간 협의로 탄핵안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비박계에도 회람시키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는 2일을 적기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야 3당 및 비박계 일부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시기의 주도

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박이 가지고 있는데, 비박이 9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 위 대변인 격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비상시국위는 탄핵에 어떤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면서 “2일이든 9일이든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탄핵 일정을 거부하거나 연장하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숫자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측에서 어제 저에게 60여 명의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했다”고 전한 반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정적으로 탄핵 찬성이 60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론을 거론하며 탄핵 찬성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강경한 기류가 여전하다.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탄핵안 의결을 이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탄핵안 찬성 의원 40명? 60명?

야권의 탄핵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탄핵 찬성 규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60명을 넘어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7일 광주를 찾아 “비박계 의원들을 불렀다”며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60여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중한 모습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비박계 60여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담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에서 일반적 인 탄핵 의사가 꽤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일 수 있지만 탄핵소추안을 아직 안 봤는

데 (찬성이) 60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60명이 넘는다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분명한 거짓이고 여당 분열을 위한 것으로, 그 거짓 말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파악한 바

박지원 “60명 넘어섰다”
우상호 “장담할 수 없어”

로는 그 숫자의 반박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적게는 40명, 많게는 60명 정도가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촛불 민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막상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여당에서 60명 이상의 찬성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무안출발 추천 겨울여행!
다낭 · 캄보디아
문의:프리미엄 로드샵[광주 총장점]
☎ 062)228-1199

캐주얼 ARPF01
초특가 필살기
앙코르왓 4일, 5일
6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1일 ~ 1월 14일 매주 수/토
스카이앙코르항공 (ZA항공)
특식4회(샤브샤브, 김치찌개, 버섯김치전골, 쌈밥정식)

캐주얼 AVPF13
[4성급 호텔] 투본강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8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12월 30일 ~ 1월 17일 (출발일 상이)
비엠펙항공 (VJ항공)
호이안 투본강 투어(\$30상당), 스낵바구니(\$10상당) 포함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인생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등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절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여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패키지(상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장전/불만접수 ☎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명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